

MLB 노리는데 1할대 타율...이정후, 다시 살아날까

올 시즌 타율 0.197 그쳐...지난해 타율 0.349

타선 변화, 심리 요인 영향...투수도 경계심 ↑

야구계에서 키움 히어로즈 간판타자 이정후(25)는 꾸준한 성적을 내줄 가장 안정적인 카드로 불려왔다. 그런 이정후가 올 시즌 17경기에서 타율 0.197(66타수 13안타)을 기록하면서 '1할 타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최근 부진한 이정후에게 특히 더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메이저리그(MLB) 진출 때문이다. 올 시즌 뒤 빅리그 진출을 선언한 이정후는 지난해 타율(0.349)·안타(193)·타점(113)·출루율(0.421)·장타율(0.575) 부문 1위를 석권,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6관왕에 올라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미국 진출을 선언한 이정후는 지난 겨울 타격 폼도 조정하면서 준비를 마쳤다.

KBO리그 개막 전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도 이정후는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WBC에서 타율 0.429(14타수 6안타), OPS(출루율+장타율) 1.071로 선전하는 동안 삼진은 단 한 개였다. 이정후의 올 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었다.

이정후도 "지난해에 못 했던 우승을 이루기 위해 겨울부터 많이 준비했다"고 언급했

다. 하지만 정작 KBO리그 개막 뒤 보여준 이정후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지난 1일 한화 이글스와 개막전을 4타수 1안타로 시작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이 개막전 타율인 0.250을 한 차례도 넘지 못했다. 자신의 지난 시즌까지 통산 타율인 0.342에 한참 못 미쳤다.

이정후의 부진 원인으로는 타격 폼 변화가 많이 꼽힌다. 하지만 타격 폼 변경이라는 단일 요소로는 지난 WBC 성적까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키움 타선의 변화, 심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단 타선의 변화로 이정후는 치기 좋은 공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다.

팀 타선은 이정후 뒤로 지난해 21홈런을 퍼올린 야시엘 푸이그를 비롯해 김하성과 박병호 등 거포가 버티고 있던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이정후 뒤를 받치는 에디슨 러셀은 올 시즌 1홈런에 그친다. 러셀은 타율이 0.356(59타수 21안타)으로 높지만, 홈런타자로 보기는 어렵다. 러셀은 2020년 키움에서 65경기에 나서 2홈런만 때려냈다.

투수가 후속 타자보다도 오히려 이정후를 더 부담스럽게 느낄 대목이다. 그 결과 투수는 이정후를 상대로 유인구 위주의 승부를 펼친다. 카운트가 불리하면 볼넷을 내주더라도 치기 좋은 공을 뿌리지 않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4월에 8볼넷을 얻어낸 이정후는 올 시즌 볼넷으로 1루를 12번이나 밟았다.

이 같은 타선 변화로 인해 이정후도 자신이 타선에서 더 많은 장타를 생산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 부담감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타율이 기대치를 하회하고는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변론도 나온다.

홈런기 키움 감독은 "타구 속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타구가 안타로 연결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심재학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MLB 스카우트는 이정후의 타율을 보지 않는다. 얼마나 하든 히트를 날리는지, 헛스윙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다"며 "이정후의 가장 큰 장점은 스트라이크존에 대한 콘택트율이다. 스트라이크존에 (공이)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을 실어 강한 타격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정후의 타율은 떨어졌지만, 홈런 페이스는 개인 최고 기록인 23홈런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다. 지난해 4월까지 4홈런을 쏘아올



린 이정후는 올 시즌엔 3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이정후는 리그 강타자로 꼽힌다. 데뷔 시즌 자신의 최저 타율 0.324를 기록한 뒤 6시즌 연속 이를 상회하는 타율을 유지했다. 이에 올 시즌 이정후의 부진이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믿음도 이어진다.

하지만 시즌 초반 부진한 기록을 만회하기 위해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일정 수준까지 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

적이다. 안타를 많이 생산해야 장타와 타점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진이 늘어난 점은 불안 요소라는 평가다. 지난해 4월까지 이정후는 3삼진에 그쳤지만, 올 시즌은 8삼진을 당했다. 이정후의 장점으로 꼽히던 콘택트율에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다.

올 시즌 남은 125경기에서 얼마나 타격 감각을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이정후의 MLB 진출의 성패도 갈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체육 전국 근대5종대회 '금 2개·은 1개·동 2개' 수확

양보민·송현서·이지아·박유민은 여중부 단체전 첫 금메달



광주체육중학교 근대5종 선수들.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체육중학교 근대5종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획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체육중 근대5종팀이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40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금 2개, 은 1개, 동 2개를 수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체육 양보민·송현서·이지아·박유민은 여중부 단체전에서 3174점을 획득해 3043점의 서울체육중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육중의 단체전 금메달은 처음이며 동계 훈련 동안 기초체력 향상 훈련에 집중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지웅이 남중부 개인전에 출전해 결승전에서 900점을 획득해 경기체육 박세찬(876점)을 제치고 두번째 금메달을 학교에 안겼다.

최지웅은 수영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레이저런 종목 마지막 100m를 남기고 역전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 밖에도 여중부 개인전에 출전한 이지아가 2위, 양보민이 3위를 차지했다.

광주체육 문예린 지도자는 "동계훈련 기간 선수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바탕으로 전문 기술을 습득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다음달 울산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어드바이저로 돌아온 김연경 "오랜만에 국대 태극기 기뻐"

여자배구 대표팀 진천 선수촌 입촌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 어드바이저로 합류한 김연경(흥국생명)이 설문을 드러냈다.

세자르 에르난데스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대표팀은 24일 진천선수촌에 소집됐다. 대표팀은 다음달 막을 올리는 2023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출전을 앞두고 손발을 맞춘다.

2020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했던 김연경도 태극마크를 달고 세자르호에 합류했다. 다만 그녀의 익숙했던 팀의 에이스가 아닌 어드바이저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대표팀으로 함께하게 된 김연경은 "아침에 진천에 올 때부터 설렘이 많이 느껴지고, 선수들을 볼 생각이 즐거웠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해 국가대표 태극기를 달게 돼 기쁘

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연경은 국가대표 선수 상담, 지도자 업무 지원 등을 통해 배구 국가대표팀 전반에 관한 조언자 역할을 맡게 됐다.

코트 밖에 서지만 여전히 어깨가 무겁다. 한국 여자배구는 김연경을 앞세워 도쿄 올림픽 4강 신화를 일궈냈다. 그러나 김연경 은퇴 후 2022 VNL 12전 전패와 세계선수권 1승 5패 등 안연한 하락세를 겪고 있다.

김연경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의 중간 역할, 외국인 스태프와 한국인 스태프의 중간 역할 등 의사 소통과 앞으로 가야하는 방향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대표팀 주장 박정아(메퍼저축은행)는 "중요한 대회가 많은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전남도청 소프트테니스팀, 실업춘계연맹전 단체전 3위 동메달

"전국체육대회 잘 준비해 좋은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3년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 춘계연맹전 단체전 3위에 입상한 전남도청 소프트테니스팀(왼쪽부터, 신희선 정상희 윤솔희 이문재 코치 김여진 박빛나 김운진)

전남도청 소프트테니스팀이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 춘계연맹전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옥천군에서 개최된 "2023년도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 춘계연맹전"에서 전남도청 소프트테니스 팀이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소프트테니스 팀은 정상희, 윤솔

희, 김여진, 김운진, 박빛나, 신희선, 김여진이 단체전에 출전해 예선전에서 안성시청에 2:1, 본선에서 경남체육회에 2:1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 문경시청을 만나 1경기 복식 김운진-박빛나 조가 문경시청 송지연-신유나 조를 5:2로 승리하며 기선제압을 했다.

뒤이어 2경기 단식 윤솔희(전남도청)가 김유진(문경시청)을 만나 3:3으로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파이널 게임에서 7:5로 패하며 세트스코어 3:4로 패했다.

3경기 복식에서도 정상희-김여진 조가 엄예진-김현진 조(이상 문경시청)를 만나 4:4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파이널 게임에서도 접전을 펼쳤지만, 어렵게 한점을 더 내주며 6:8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이문재 코치는 "우리 선수들이 큰 부담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고, 향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전남도청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리는 대회와 올해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잘 준비해 좋은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선욱기자

포체티노, 손흥민과 적으로 만나...첼시 부임 유력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토트넘 홋스퍼 감독의 첼시행이 유력해지면서 손흥민(토트넘)과 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BBC 등 복수의 현지 매체는 25일(한국 시간)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과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첼시는 올 시즌 토마스 투헬,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경질하고 최근 구단 레전드인 프랭크 램파드에 임시 사령탑을 맡겼다.

하지만 팀 성적이 개선되지 않자, 과거 토트넘을 이끌며 EPL 경험이 풍부한 포체티노 감독과 차기 정식 감독직을 놓고 협상 중이다.

현재 첼시는 EPL 11위(승점 39)에 처져 있다. 다만 램파드 감독이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약된 가운데 포체티노가 시즌 도중에 부임할지, 아니면 다음 시즌부터 지휘봉을 잡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팬들에게 손흥민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포체티노 감독은 사우샘프턴을 거쳐 2014~2015시즌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을 지도했다. 특히 2016~2017시즌 EPL 2위, 2018~20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포체티노 감독은 2021~2022시즌 프랑스 리그1 파리생제르맹(PSG)을 이끈 뒤 야인오로 지내왔다.

포체티노가 첼시 사령탑으로 EPL에 돌아오면 제2인 손흥민과 맞대결이 예상된다.